

프로배구 연봉킹 황택의·연봉퀸 양효진

남자 평균 1억5300만원
여자는 1억1200만원
양효진은 8년 연속 1위

KB손해보험의 세터 황택의가 '한선수(대한항공) 천하'에 마침표를 찍고 처음으로 프로배구 남자부 최고 연봉 선수가 됐다. 현대건설의 센터 양효진은 8년 연속 여자부 연봉 1위를 질주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6월 30일 마감한 2020-2021시즌 선수 등록 자료를 근거로 1일 발표된 연봉 내용을 보면, 황택의는 연봉 7억3000만원을 받아 5년 연속 이 부문 1위를 지키던 한선수(6억5000만원)를 제쳤다. 신영석(현대캐피탈·6억원)과 정지석(대한항공·5억8000만원), 박철우(한국전력·5억5000만원)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여자부에서는 양효진이 연봉 4억5000만원과 옵션 2억5000만원을 합쳐 보수 총액 7억원으로 최고 액을 찍었다. 흥국생명의 이재영이 연봉 4억원, 옵션 2억원 등 총액 6억원으로 2위를, 한국도로공사의 박정아가 연봉 4억3000만원, 옵션 1억5000만원 등 총 5억8000만원으로 3위에 올랐다. 여자부는 이번 시즌부터 연봉과 옵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물을 아우르는 '보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연봉은 매월 지급하는 고정적인 보수, 옵션은 연봉 외에 승리 수당, 출전수당, 훈련수당, 성과 수당 등 배구 활동에 관한 보상과 계약금, 부동산, 차량



황택의

■2020-2021시즌 프로배구 남녀 몸값 상위 10걸

남자(소속)	순위	여자(소속)
황택의(KB손해보험) 7억3천만원	1	양효진(현대건설) 7억원 연봉 4억5천만원+옵션 2억5천만원
한선수(대한항공) 6억5천만원	2	이재영(흥국생명) 6억원 연봉 4억원+옵션 2억원
신영석(현대캐피탈) 6억원	3	박정아(한국도로공사) 5억8천만원 연봉 4억3천만원+옵션 1억5천만원
정지석(대한항공) 5억8천만원	4	김희진(IBK기업은행) 5억원 연봉 4억5천만원+옵션 5천만원
박철우(한국전력) 5억5천만원	5	이다영(흥국생명) 4억원 연봉 3억원+옵션 1억원
나경복(우리카드) 이만규(OK저축은행) 이상 4억5천만원	6	김연경(흥국생명) 이소영·강소휘(이상 GS칼텍스) 연봉만 3억5천만원. 옵션 없음
송명근(OK저축은행) 4억원	8	한수지(GS칼텍스) 김수지(기업은행) 3억원 이상 연봉 2억5천만원+옵션 5천만원
곽승석(대한항공) 3억7천만원	9	황민경(현대건설) 3억원 연봉 2억8천만원+옵션 2천만원
박상하(삼성화재) 박진우(KB손해보험) 이상 3억6천만원	10	

※ 남자부는 옵션 미공개에 따른 연봉 순위, 여자부는 공개된 보수(연봉+옵션) 순위.



양효진

제공,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등 배구 활동 외적인 모든 금전적인 보상이다. 여자부 이번 시즌 셀러리캡(연봉 총상한)은 연봉 18억원과 옵션 5억원 포함 23억원이다. 여기에 승리 수당 3억원을 책정해 각 팀은 최대 26억원을 선수단에 쓸 수 있다. 단 승리 수당 전체를 특정 선수에게 몰아줄 수는 없다. 남자부는 셀러리캡 '현실화'를 위해 3년에 걸쳐

상한액을 31억원, 36억원, 41억5000만원으로 증액하되 연봉과 옵션을 2022-2023시즌부터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된 액수는 그래서 여자부와 달리 옵션이 빠진 연봉뿐이다. 남자와 여자 선수들의 평균연봉은 각각 1억5300만원, 1억1200만원이다. 여자부 구단별로는 현대건설이 평균 연봉 1억

2700만원으로 1위를 달렸고, 도로공사(1억2300만원), IBK기업은행(1억1300만원)이 2, 3위를 차지했다. 윤봉우(우리카드), 백목화(IBK기업은행) 등 10명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식됐고, 남자 12명과 여자 6명 등 18명이 자유신분선수가 됐다. 자유신분선수는 정규시즌 4라운드 시작 전까지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연합뉴스

울주세계산악문화상에 여성 클라이머 데스티벨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산악영화제로 자리 잡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2020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카트린 데스티벨(Catherine Destivelle·60·사진)을 선정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은 최근 울주세계산악문화상(Ulju Mountain Culture Awards·UMCA) 선정위원회를 열고 네 번째 수상자를 뽑았다고 1일 밝혔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2017년부터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 세계 자연과 환경, 등반, 영화, 문화 등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을 선정해 상을 준다. 카트린 데스티벨은 릭 리지웨이(Rick Ridgeway), 크리스 보닝턴(Sir Chris Bonington), 쿠르트 댐베르거(Kurt Diemberger)에 이은 수상자다. 2020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 카트린 데스티벨에게는 늘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다. '최초'와 '여성'이다. 여성 최초로 카라코람의 트랑고 타워 등반, 드류의 남서팔에 단독으로 신루트 '데스티벨 루트' 개척, 17시간 만의 아이거 북벽 동계 단독 등반, 알프스 3대 북벽 여성 단독 초등 등의 역사를 써 내려왔다. /연합뉴스



광주전자공고·순천팔마중 춘계배구 아쉬운 준우승

속초고·함안중에 결승서 분패
선수 9명 전자공고 체력 '발목'
팔마중 최보민 최우수선수상

광주전자공고와 순천팔마중학교가 2020춘계남녀중고배구연맹전에서 각각 준우승했다. 전자공고는 1일 충북 단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춘계남녀중고배구연맹전 남고부 결승에서 강원 속초고에 세트스코어 0-3(18-25 16-25 20-25)으로 아쉽게 패했다. 전자공고는 체력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체 9명의 얇은 선수층으로 예선부터 결승까지 6일 연속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했다. 여기에 서브와 공격에서 실수가 이어지면서 1세트 초반부터 끌려가 1, 2세트를 20점도 얻지 못하고 내줬다. 전자공고는 3세트 초반 좌우 공격이 살아나면서 7-5로 앞서는 등 앞선 세트와는 달랐던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7-5로 앞서던 상황에서 연거푸 3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다니 끝내 따라잡지 못하고 21점만 얻고 무릎을 꿇었다. 전자공고 세터 조승연은 우수상, 김준형은 레프트 공격상, 정인혁은 라이트 공격상을 수상했다. 선홍은 장학금 40만원을 받았다. 박병희 전자공고 배구감독(교사)은 "준우승을 거둬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현재까지 와서 선수들을 격려해주신 김용태 교장선생님의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다음 대회에서 꼭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팔마중은 이날 열린 같은 대회 남중부 결승에서 경남 함안중에 세트스코어 0-2(19-25, 17-



순천팔마중학교 배구팀 선수들이 2020 춘계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남중부 경기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 대회 시상식은 열리지 않았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25)로 패했다. 남중부 최우수선수상은 순천팔마중 최보민(3년)이 수상했다. 같은 학교 임정식(3년)도 우수선수 장학금을 수상했다. 순천팔마중은 지난달 25일 대회 첫 경기에서 연현중학교를 2-0으로 꺾고 27일 문일중학교를 2-0으로 완파했다. 이어 8강전에서 금호중을 2-0으로 꺾고 3연승과 동시에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며 4강에 올랐다.

순천팔마중은 지난 30일 열린 옥전중학교와의 4강전에서도 두 세트를 내리 25-14로 따냈다. 팔마중은 4강전까지 4경기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따내는 경기력을 과시했다. 순천팔마중 조승훈 감독은 "준우승에 그쳐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다음 대회에서 꼭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팔마중은 전국 소년체전 통산 4차례 우승(38·39·44·46회)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셸 위, 출산 10일만에 유모차 끌고 골프 연습

지난달 딸을 낳은 재미교포 골프 선수 미셸 위 웨스트(31)가 출산 후 10일 만에 유모차를 끌고 골프 연습장으로 향했다. 위 웨스트는 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유모차를 뒤에 두고 연습을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며 '케나의 첫 외출, 스탠퍼드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사무국 임원인 조니 웨스트와 결혼한 위 웨스트는 현지 날짜로 6월 19일에 딸 매케나 카말레이 유나 웨스트를 낳았다. 그의 골프 연습 사진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동료 선수들도 놀라다는 반응을 보였다. 크리스티 커는 '지금 아기와 어디에 있는 거야'라고 물었고, 티파니 조는 '오 마이 갓, 집으로 가세요. 성취욕 넘치는 사람'이라고 재치있게 '산모'에게 조언했다. 제시가 코르다는 '레츠 고'라며 위 웨스트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도 위 웨스트의 골프 연습 소식을 전하며 "유모차에 탄 딸 케나가 엄마 뒤에서 전망을 즐기고 있다"며 "언젠가 케나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엄마의 파워풀한 스윙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골프위크는 "위 웨스트가 5월 인터뷰에서 12월



미셸 위 웨스트가 유모차 안의 딸을 바라보는 모습. <미셸 위 웨스트 소셜 미디어 사진 캡처>

US오픈에 출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라고 전망했다. 또 골프 채널은 "만일 위 웨스트가 US오픈에 선수로 출전하지 않더라도 중계 부스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2관	#살아있다
3관	소리꾼, 침입자
4관	#살아있다, 다크 나이트
5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위대한 쇼맨, 인베이전 2020, 코드 8, 해피 데이
6관	#살아있다
9관	결백
7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소리꾼, 침입자
8관 씨네카를	결백, 사라진 시간, 시, 나리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소년단>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4
박주원의 방랑예찬
2020. 7. 22.(수)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창작발레 오늘바깥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예회관 소극장